

# 감염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의 대처에 대한 평가

정두련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 Evaluation of the Correspondence against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s Specialist Survey

Doo Ryeon Chung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Although the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has caused substantial morbidity and mortality worldwide, it could be overcome by enormous efforts of the health authorities, medical societies, and all the people of a n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of the influenza pandemic, we performed an on-line survey for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who were certified for the infectious diseases specialists.

**Key Words:** Influenza, Human, Disease outbreaks, Data collection

2009년 북미에서 시작하여 4-6주 만에 여러 대륙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인플루엔자 대유행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잊혀져 가고 있다(1).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전 세계 214개국에서 최소 17,853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국내에서는 2009년 4월 26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여성이 환자로 처음 확진된 이후 해외 여행객, 입국 외국인을 통해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유행으로 이어졌고(3) 지금까지 2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4) 현재는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다(5).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발생 등으로 인해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경고가 있어왔고 나름대로의 사전 대비가 있었지만 막상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험하게 되니 보건 당국이나 의료계, 일반 국민, 언론계 등 사회 전체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2009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 개선할 점 등을 돌아보는 일은 추후 다가올지 모르는 더 무서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감염학회에서는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정부 보건 당국과 대한감염학회의 대처에 대한 감염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대한감염학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2010년 2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은 대한감염학회 회원 중 감염분과전문의, 소아감염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였으며 각각 127명, 18명, 44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 중 모두 3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감염분과전문의 31명, 소아감염전문의 1명,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4명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27명(75%), 여성 9명(25%)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30대 13명

Copyright © 2010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Submitted: April 14 2010

Accepted: April 26 2010

Corresponding author: Doo Ryeon Chung, M.D., Ph.D.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50 Ilwon-dong, Gangnam-gu, Seoul 135-710, Korea

Tel: +82-2-3410-0323, Fax: +82-2-3410-0041

E-mail: drchung@skku.edu

[www.icjournal.org](http://www.icjournal.org)

(36.1%), 40대 18명(50%), 50대 3명(8.3%), 60대 2명(5.6%)이었다. 근무 병원의 유형을 보면 3차병원 21명(58.3%), 2차병원 13명(36.1%), 1차병원 1명(2.8%), 기타 1명(2.8%)이었고, 대학병원 29명(80.6%), 비대학 교육병원 2명(5.6%), 비교육병원(전공의 없음) 5명(13.9%)이었다. 근무 병원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이었는 응답자가 34명(94.4%)이었다. 정부 보건 당국과 대한감염학회의 대처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의견은 Table 1과 같았다.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의 전환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의견이 66.7%로 더 많았다. 2009년 8월 치료거점병원 중심의 진료체계로의 전환 시점의 적절성과 치료거점병원 선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각각 61.1%와 72.2%로 많았다. 또한, 2009년 10월 말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환조치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58.3%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를 하도록 조치했다면 적절했을까 하는 질문에는 52.8%가 적절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백신 접종 관련하여 대상에 따라 시기를 다르게 한 정책에 대해서는 88.9%가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지침에 대해서는 88.9%가 신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한감염학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58.3%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대한감염학회의 가능한 대처 중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가장 전문적인 학회로서 국내 의료관련 학회를 이끌고 의료계의 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28명, 77.8%) 2)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 진료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있어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22명, 61.1%) 3)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면서 학회의 입장이나 의견을 언론을 통해 수시로 알렸어야 한다(15명, 41.7%) 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식과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수칙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였어야 한다

(13명, 36.1%) (Table 1).

정부 당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미흡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추후 비슷한 신종 전염병의 유행을 대비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서술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의료기관, 전문학회와의 의사 소통이 충분치 않았음 2) 잦은 진료지침의 변경과 변경된 지침의 일선 의료기관 전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혼란을 야기했음 3) 사전 준비된 대응전략에 따른 침착한 대응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론 경향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바뀌었음 4) 언론 관리 실패로 국민의 불안 조장 5)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고 필요 6) 일반 의료기관에 책임을 너무 전가시켰음 7) 치료거점병원 체계로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의 전환시점이 늦어졌음.

대한감염학회의 대응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나 추후 금번 대유행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유행이 다시 있을 경우 대한감염학회에서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전문학회로서 질병관리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 학회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했고 정책결정, 지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함 2) 학회 주도의 역학 연구 및 자료 발표가 필요했음 3) 의료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 4) 학회 차원에서 언론 홍보 부족 5) 향후 다른 유행 발생에 대비한 비상시 대응 조직 준비 필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초기 봉쇄, 백신개발과 접종을 통한 전파 차단, 중증 환자 발생 감소에 있어 우수하였고, 특히 유행 발생 초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전까지의 공중보건학적 정책이 유행을 늦추고 각 분야의 대응 준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6). 반면,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의 사전 비축, 교육 부분에서는 준비가 미흡하였고 이 점이 유행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6).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처

Table 1. Opinion Survey on the Management of the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No. (%)					
	Very inadequate			Very adequate		
	1	2	3	4	5	6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the national disaster phase as "Caution" on April 28, 2009, "Alert" on July 21, "Severe" on Nov. 3, and again "Alert" on Dec. 11. Do you think that the government applied the national disaster phase adequately?	0 (0)	6 (16.7)	6 (16.7)	10 (27.8)	14 (38.9)	0 (0)
The 470 designated hospitals were activated on Aug. 21, 2009. Do you think that such an action of the health authorities was timely?	3 (8.3)	8 (22.2)	14 (38.9)	5 (13.9)	6 (16.7)	0 (0)
Do you think that the designation process for the hospitals to care the patients with influenza was adequate?	6 (16.7)	19 (52.8)	7 (19.4)	4 (11.1)	0 (0)	0 (0)
The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so that all the hospitals care the patients with influenza since the late October in 2009. Do you think that such an action was timely?	3 (8.3)	10 (27.8)	8 (22.2)	7 (19.4)	8 (22.2)	0 (0)
If all the hospitals were allowed to care the patients with influenza from the beginning without designation, do you think it would be adequate?	2 (5.6)	7 (19.4)	8 (22.2)	5 (13.9)	10 (27.8)	4 (11.1)
Do you think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was adequate?	0 (0)	0 (0)	4 (11.1)	8 (22.2)	21 (58.3)	3 (8.3)
Do you think that the ac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against the pandemic influenza was adequate?	2 (5.6)	15 (41.7)	4 (11.1)	8 (22.2)	7 (19.4)	0 (0)
	Very inadequate			Very adequate		
	1	2	3	4	5	6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distributed the treatment guidelines for pandemic influenza and revised several times. How much have you had a confidence in the guidelines of KCDC?	0 (0)	0 (0)	4 (11.1)	8 (22.2)	21 (58.3)	3 (8.3)

음에 우려했던 바와 같은 더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낸 지금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노력했던 정부 당국, 의료계, 제약업계, 관련학회, 언론 등과 함께 전 국민 모두가 그 노력과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다만, 이러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다시 평가하고 고민하여 추후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의 유행 시에는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가 이러한 대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1. CDC. Outbreak of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virus infection - Mexico, March-April 2009. MMWR Morb Mortal Wkly Rep 58:467-70, 2009
2. World Health Organization. Pandemic (H1N1) 2009 - update 97. (Accessed on April 28, 2010) Available from: [http://www.who.int/csr/don/2010\\_04\\_23a/en/index.html](http://www.who.int/csr/don/2010_04_23a/en/index.html)
3. Kim WJ. Epidemiolog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fluenza pandemic (from 1918 to 2009). Infection and Chemotherapy 41 (Suppl. 2):S1-8, 2009
4.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pdate on novel influenza A (H1N1). (Accessed on April 28, 2010) Available from: <http://www.flu.cdc.go.kr>
5.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fluenza Sentinel Surveillance Report Number 16-2010.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6. Choi WS, Kim WJ, Cheong HJ. The evaluation of policies on 2009 influenza pandemic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43:105-8, 2010